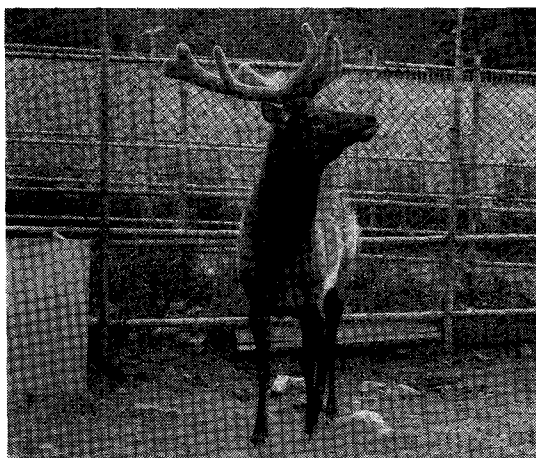


조혈 세포촉진 신물질 연구 착수 녹용에서 분리추출한 천연성분



부광약품 (대표 윤종여) 은 B형 간염치료제 「클레부딘」을 미국 트라이앵글사에 대한 기술 수출로 신약개발의 성과를 높인데 이어 「조혈 모세포 및 혈소판 전구세포 증식촉진 신물질」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.

동사가 추진중인 신약개발 연구과제는 「조혈모세포 및 혈소판 전구세포 증식촉진 신물질」로서 최근 울산의대 중앙병원측과 공동개발 계획을 체결했으며, 이 신물질은 「녹용」에서 추출분리한 천연성분으로 그 구조를 규명하여 현재는 합성품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이 신물질은 몇가지의 생체내·생체의 실험에서 인체의 조혈모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강

력한 조혈기능을 나타내어 악성빈혈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, 혈소판 전구세포의 증식효과도 있어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 주므로써 암환자의 항암요법시 병용요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.

동사는 앞으로 「조혈모세포 및 혈소판 전구세포 증식촉진 신물질」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면역기능과 혈액세포들의 기능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는 질환에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, 항암제 투여후나 방사선 조사후에 골수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악성고형암, 악성혈액질환, 재생불량성빈혈, 선천성 간혈적백혈구감소증, 선천성면역 및 조혈모세포 결여증,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빈혈,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, 고령화로 인한 골수기능 저하증 등 임상 각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조혈 촉진제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한편 동사가 미국 트라이앵글사와 공동개발 중인 B형 간염 치료제 「클레부딘」은 앞으로 비설치류 동물인 원숭이와 설치류인 랫트를 대상으로 아급성 및 만성독성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용량결정 연구를 이미 시작했으며, 99년 2월까지 독성시험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*